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Fukushima

NOW

Vol.15 (2021년 2월 발행)

(공재) 후쿠시마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지진 재해 복구를 향한 활동과 국제교류·협력단체 활동, 외국출신 현민의 목소리 등, 후쿠시마현의 '지금'을 다국어로 알리고 있습니다.
※번역판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타이틀 '힘내자 후쿠시마'로 시작된 'Fukushima NOW'는 금년도 3회 분을 후쿠시마현의 부흥과 재생을 위한 발걸음에 대한 특집 시리즈로 발행합니다. 마지막 시리즈인 이번 호에 게재될 내용은 안포곶감의 산지부활에 대해서입니다.



부활·은빛 세계의 황갈색 과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영향은 농지와 농작물에도 미쳤고, 후쿠시마현산 농림수산물도 출하자속과 품문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내 농림수산물과 가공품은 방사성물질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검사결과를 공표해 먹거리의 안전 안심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진재해의 영향을 받은 가공품의 하나로 안포곶감을 들 수 있습니다. 안포곶감은 유향훈증 제법으로 건조가공해 과실을 반생상태로 건조시킨 곶감으로,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다테시 야나가와 지구에서 탄생되었습니다. 다테지역의 농가는 후쿠시마현이 발령한 2011년과 2012년 2년 간에 걸친 안포곶감 가공자속요청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되는 등 산지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산지를 지키고 안심 안전 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농가와 농협 등의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수목 방사성물질 제염, 감 오염상황 파악을 위해 전 농가 검사 등 여러 방법 등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3년 안포곶감 산지는 가공재개 모델지구로 재개해, 현재도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사진: "황갈색" 안포곶감



후쿠시마 미라이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카즈마타 세이이치 씨

다테시 야나가와마치 출신. 1974년부터 주로 과수 영농지도원으로 근무. 동일본 대지진 시 농가와 행정기관의 조정역할로서 지진 재해 대응을 담당. 현재는 후쿠시마현 현복과 소우마지역의 12시정촌을 관할하는 광역 JA 조합장입니다.

Q 안포곶감 산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안포곶감은 1922년 구 야나가와마치 이사자와에서 제법이 확립되었고 전국의 산지에 보급되었습니다. 당시 다테지역은 양잠이 번성. 가을에는 양잠, 겨울에는 안포곶감을 생산하게 되면서 눈이 많은 시기에 타지역에 돈벌이를 가지 않아도 농업만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다테지역은 안포곶감의 산지로 정착해 갔습니다.

Q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사고 후,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포곶감 가공을 재개할 수 있을지 제염방법에 대해서 농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포곶감 산지를 다시 되찾고 싶다는 일심으로 몇 번이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제염작업은 농가, 농협, 개인 생산자 여러분 전원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테지역 1시 2정 약 55만그루의 전 수목을 세정했고 그 중에서 감은 약 25만 그루가 있었습니다.

Q 안포곶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2016년 가공시설인 '안포공장 미라이'를 신설하여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생산자들의 작업 부담 경감에 일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으로는 보존방법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 두바이에 수출을 검토중입니다. 안포곶감의 산지는 부흥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 원자력재해로부터 느낀 점 **조 셴이 씨** (중국 · 상하이 출신 · 미시마마치 거주)

지역 살리기 협력대로 활동하고 있는 조 셴이 씨는 국교정상화 후 국비유학 1기 생이었던 큰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일본에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츠메이칸대학을 졸업한 후 중국의 후쿠시마현 상하이사무소에 취직해 현산품 수입관계를 담당했던 조 씨는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합니다. 2013년 JET 프로그램 국제교류원으로 후쿠시마현 국제과에서 5년간 근무하며 정확한 정보발신에 전력을 다한 조 씨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ZOOM 인터뷰: 2020년 12월 16일)



- 조 씨가 체험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3월 11일은 여행으로 시즈오카현에 있었습니다. 전 날 중국에서 후쿠시마현에 도착했고, 일주일 정도 일본에 체재할 예정이었습니다. 도쿄의 계획정전으로 공항까지 갈 수가 없어서 예정된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계획정전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7년이나 생활하면서 '운텐 미야와세(운전 보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현에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후쿠시마현의 현 상황을 직접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재해지를 방문하고 재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의 부흥 모습을 알리기 위해 일본과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해 후쿠시마현을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며 풍문보식 발신에 열정을 쏟고 있는 외국인들을 만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후쿠시마현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지만 해외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에 대한 풍문이 남아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내 부흥 상황을 계속해서 SNS에서 갱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현재 후쿠시마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전과 안심 발신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미시마마치에서 산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맞춰나가는 방법은 "지혜롭게 요령 있게"가 중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생활은 즐거워집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내고 싶습니다.

Scenes of Fukushim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담 핫라인

후쿠시마현은 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19개국어로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료와 전화요금은 무료입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으신 분은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 0120-992-860

대응언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조선어, 네팔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말레이어, 몽골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신할리어

※무료통신 앱 「LINE」으로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LINE 계정 QR 코드→



다국어 부흥정보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

후쿠시마현 부흥 상황의 최신 데이터와 식품 안전·안심을 위한 활동, 후쿠시마를 응원하는 분들의 활동 등을 10개국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태국어)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ko/>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상담창구 - 11개국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타갈로그어

포르투갈어 · 베트남어 · 태국어 ·

네팔어 · 인도네시아어 · 스페인어

매주 화요일~토요일 9:00~17:15

☎024-524-1316 ✉ask@worldvillage.org (상담 전용)

발행자

(공재) 후쿠시마현국제교류협회

〒960-8103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 후나바초 2-1

☎ 024-524-1315 📠 024-521-8308

✉ info@worldvillage.org

🌐 <http://www.worldvillage.org>

Facebook <https://www.facebook.com/fiainfo>

Twitter https://twitter.com/fia_info

◇알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발행해 온 「Fukushima NOW」는 이번 호가 최종회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